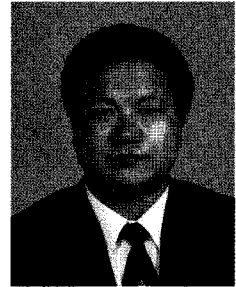




비파나무

- ▶ 과명 : 장미과
- ▶ 학명 : *Eriobotrya japonica*
- ▶ 한명 : 枇杷
- ▶ 일명 : びわ



최 명 섭

국립산림과학원 환경생태연구실

비파나무는 중국의 절강성과 일본의 규수 등 난대지역의 석회암이 母巖인 곳이 원산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연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오랜 옛날부터 그 이름은 알려져 온 과일이다, 그러면서도 실물은 그다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비교적 귀에는 익숙하나 눈에는 낯선 과일에 속한다. 그러나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매우 재배가 활발한 과일에 속한다.

1. 생태적 특성

겨울에도 푸른 잎을 가진 소교목으로 높이 10m에 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강점기때 심어둔 것이 많다. 일부에서 과수로 도입하여 남부지역에서 식재하고 있으나 집단적인 재배지는 거의 없다. 추위에 약하여 중부지방에서는 밖에서 겨울을 나기가 어려우며 햇빛을 좋아하고 대기오염에도 매우 강하며 맹아력도 좋은 편이다.



▲ 비파나무



▲ 비파나무

2. 형태적 특성

높이는 6~10m, 직경 30cm정도 자라며 굵은 가지가 드문드문 영성하게 나서 開長性으로 자란다. 어린가지는 굵으며 연한 갈색 밀모로 덮여 있다. 잎은 어긋나고 타원상 긴 난형이며 첨두, 예



▲ 비파나무

저로서 길이 15~25cm, 나비 3~5cm로서 표면에는 털이 없으며 뒷면은 연한 갈색 밀모로 덮여 있으며 가장자리에 피아상의 톱니가 드문드문 있고 잎자루는 길이 10mm이다. 꽃은 10~11월에 피며 지름 1cm로서 백색이고 원추화서는 가지끝에 달리며 연한 갈색 털로 덮이고 꽃받침잎과 꽃잎은 각각 5개이다. 열매는 구형 또는 타원형이며 3~4cm로서 다음해 6월에 황색으로 익고 종자는 흑갈색이다.

3. 조경수로서의 활용

겨울철 온도가 5℃이하로 내려 가는 곳에서는 다소 무리지만 제주도나 그 외 도서지방은 물론 부산, 마산, 여수, 목포등 남해안에서도 재배가 가능하다. 현재까지 비파나무는 과수로서 경영 재배된 것보다 오히려 가정 과수로서 그 명맥을 유지해왔다.

비파나무는 공해에도 강하고 약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면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남부지방의 가정과수 뿐만아니라 관광지에 특수과수로서 도입한다면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4. 번식법

번식은 종자로 하거나 접목으로 번식한다.

비파나무 종자는 휴민성이 없기 때문에 채집된 종자를 직파하면 1달 후 발아한다.

형질이 우량한 묘목을 얻으려면 접목을 한다.

5. 그 밖의 용도

6월에 노랗게 익는 열매는 생식으로 하거나 통조림으로 만들며 비파술은 약용술이다. 비파나무 잎은 소염성 목욕재로서 비파잎을 넣은 목욕물은 땀띠, 습진 등에 효과가 있으며 더위 먹었을때는 10~20g을 진하게 달여 식후에 2~3회 복용하면 식중독이나 설사같은 더위먹어서 생긴 증세가 깨끗이 낫는다. 또 습진이나 벌레 물린데는 이 다린 물로 찜질을 한다. 